

수탈·항쟁의 역사 가난했던 섬, 물김으로 부촌 이루다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당인마을의 항구는 완도의 물김이 모이는 위판장이 있는 물김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양식장에 가져갈 도구를 배에 싣기 위해 크레인을 움직이고 있다.

완도군 군외면 당인마을은 ‘쌀 서말을 못 먹고 시집간다’던 가난한 동네였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완도에서 가장 지형이 험준하고 교통이 불편한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도읍면에서 나는 물김은 모두 이곳 위판장을 거쳐 가공 공장으로 향한다. 당인마을을 떠난 물김은 마른김, 자반 등으로 변신해 우리네 식탁에 오른다. 물김을 수확하는 어민들의 손이 분주해지면, 물김이 가득 담긴 마대를 옮기는 당인마을의 크레인도 덩달아 바빠진다. 물김을 품고 있는 바다는 이곳 주민들의 삶을 바꾼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위대한 자연은 때로는 시련을 준다. 지난 10월 초 태풍 콩레이가 지나가면서 한참 분주해야 할 시기에 마을 주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잠시 손을 놓고 있어야 했다.

김생욱(63) 당인마을 어촌계장은 “태풍이 와야 바다가 뒤집히면서 쟁기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태풍은 좋은 태풍이지만 시기가 좋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김 가격도 좋았는데 작황도 안 좋다고 하고 걱정이 많다”고 언급했다.

시련의 가을을 보냈지만 마을 주민들은 결실의 겨울을 맞이 위해 바쁘게 바다를 오가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련을 이겨내고 미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당인마을의 역사가 있다.

일제강점기 때 항일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곳이 완도다. 그리고 앞서 가리포민란의 선봉에 섰던 허사겸이 바로 당인마을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풍부한 햇볕에 품질 좋은 물김·전복 주 생산지
완도서 나는 물김 당인마을 위판장으로 집결
연로한 부모에 자녀들 잇단 귀향... 젊은 마을 변신 중
천혜의 풍광·역사 관광 자원화로 ‘새 소득 찾기’ 분주

1882년 가리포진(완도)에 부임한 ‘첩사’(僉使·고을 수령) 이상돈의 수탈과 학정에 주민들이 분노가 극에 달했고, 1883년(계미년) 11월 18일 자시(子時) 마을 이장이었던 허사겸이 죽음을 각오하고 허공에 나팔을 불었다.

고요한 바다 위로 퍼져나간 나팔 소리는 ‘계미민요(癸未民謠)’의 불을 지피는 신호



당인마을 선착장.



물김과 함께 전복은 당인마을의 주요 생산물이다. 전복 양식에 쓰이는 도구를 세척하고 있는 어민.

목되면서 관군에 의해 강진 병영으로 끌려갔고, 27세의 젊은 나이에 행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지난 2008년 허사겸 선생 등 8명의 뜻을 기려 위패가 모셔진 장의사(長義祠)가 세워졌고, 매년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수탈과 항쟁의 역사를 안고 있던 가난한 마을을 부촌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다, 물김이다. 부지런한 손길로 청정바다의 향에 햇살을 입힌 게 ‘성공 전략’이다.

김 계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쪽 지역의 물김은 햇빛을 많이 본다. 부표를 뒤집으면서 김발을 노출한다. 한번 치는데 20-24일 정도 걸리는 데 햇볕에 노출이 되면 맛이 다르다. 정성이 더해지면서 질이 좋고, 빛깔도 다르다”고 이곳 물김에 관해 이야기했다.

물김은 떠났던 이들의 발길도 잡았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 마을 주민들의 노력에 따라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 귀어 행렬이 이어지면서 점점 젊은 마을이 되어가고 있다.

김 계장은 “바다에 나가는 마을 최고령자가 77세다. 75세 이상도 대여섯 명 정도 되는데 75세는 정년이라고 봐야 한다. 아버지가 이제 일하기 힘들어지는 나이가 되니까 고향을 떠났던 자식들이 돌아오고 있다. 2-3년 정도 됐지만 귀어 인구가 30명 정도 된다”며 “후배 양성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발전되고 미래가 있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인마을에는 물김이라는 대표 자원이 있지만, 이는 자연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또 다른 소득 자원도 필요하다. 당인마을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관광이다.

당인마을의 향은 뛰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지금까지는 생활의 터전을 오가는 곳에 그쳤지만 좋은 관광 자원으로 손색이 없다. 마을 앞뒤로 빙 둘러 있는 바다의 운치도 좋다.

근처에 둘러볼 곳도 많다. 8km 거리에 완도 수목원이 위치했고, 차로 불과 3분 거리에는 청해포구 드라마 세트장이 있다. ‘해상왕’ 장보고의 일대기를 담은 특별기획드라마 ‘해신’이 촬영된 곳으로, 주말에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천혜의 환경에 정성 가득한 질 좋은 물김 그리고 의미있는 역사까지 품고 있는 곳. 당인마을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어촌뉴딜 300 공모 사업” 선정 돼 미래가 있는 당인마을 되었으면...”

김생욱 어촌계장

“발전된 당인, 깨끗한 당인 그리고 미래가 있는 당인이 우리의 꿈입니다.” 완도군 군외면 당인마을의 김생욱(63) 어촌계장에게 2018년은 고난을 넘어 미래로 가는 시간이다.

지난 10월 초 ‘가을 태풍’ 콩레이가 바람 많은 당인 마을을 휩쓸고 가면서 김양식을 하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김 계장은 “태풍이 오면서 자연 포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태풍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김 작황도 안 좋다고 하니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당인마을에는 완도 전체 군의 물김이 한곳에 모이는 위판장이 있다. 그만큼 물김은 당인 마을의 대표적인 생산물이다. 지난 가을 거센 파도에 고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당인마을. 하지만 바다는 당인 마을의 오늘을 있게 한 품이자 다른 꿈을 꾸게 하는 미래다.

김 계장은 “예전에는 빈손이었던 곳이 지난 김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바다라는 큰 자원에 의존해서 부촌이 됐다”며 “최근 귀어인도 많이 늘었다. 부모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젊은 이들이 많이 늘었다. 우리 세대는 컴퓨터도 잘 모르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활기찬 마을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이 당인마을의



현재로 자리 잡고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 계장은 ‘어촌뉴딜 300 공모 사업’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 계장은 “워낙 향이 이쁘고, 경치가 좋다. 자연을 잘 활용해 전망대로 만들고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물김을 위판하는 곳에 그쳤지만 불거리가 될 수 있고, 특산물 판매의 장도 될 수 있다”며 “향 자체의 개발도 필요하다. 큰 배들은 큰 파도가 치면 피신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관광지와 향 개발을 위해서는 뉴딜 300에 선정돼야 한다. 깨끗하고, 발전이 있는 마을 그리고 소득이 있는 마을로 어촌의 좋은 미래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 ▶ 승용차 서울 → 경부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동서천분기점) → 서영암IC → 영풍교차로(월출산, 성전방면) → 신제교차로(독천방면) → 해남교차로(완도, 해남방면) → 완도군 → 군외면 → 당인마을
-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완도공용버스터미널(5시간) → 완도공영터미널정류장 도보로 이동(0분) → 완도공영터미널정류장 완도-남창행 승차(30분) → 당인하리정류장 하차 → 당인마을
- (30분) → 당인하리정류장 하차 → 당인마을
- ▶ 열차 용산역KTX → 광주 송정역(1시간 32분) → 송정역 정류장 도보이동(3분) → 02번 버스 탑승(32분) → 광천터미널정류장 하차 →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도보이동(5분) → 완도공용버스터미널(2시간20분) → 완도공영터미널정류장 도보로 이동(0분) → 완도공영터미널정류장 완도-남창행 승차(30분) → 당인하리정류장 하차 → 당인마을